

우휴모탁국과 부천*

박 찬 규**

국문초록

우휴모탁국은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 보이는 마한소국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소국의 규모나 사회성격, 경제구조 등 모든 면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일차 방도는 위치 문제에서 부터라 하겠는데 이것도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휴모탁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렵다. 다만 우휴모탁국 위치에 대해 부천지역도 거론되고 있어 기왕에 거론된 우휴모탁국 위치에 대한 여러 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부천과의 관련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러 설 중에서 이병도의 부천(부평)설은 여전히 유효한 견해를 알 수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 부천지역 군 이름인 주부토군과 장제군을 통해서 부천(부평·계양 포함)지역에 마한 소국이 실재하였을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휴모탁국이 부천지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국어학적으로 부천의 조선시대 면 이름 중 하나인 주화곶면이 주부토군과 연결되고 나아가 우휴모탁국과의 연결도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고고학적으로는 부천의 고강동유적이 주목되었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의 것으로 부천지역 마한소국의 존재를 입증해 줄 자료로 생각되었다. 특히 이 유적의 환구유구는 그 구조나 입지 조건에서 종교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마한 소도의 원형으로까지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주부토’명 기와가 발견된 계양산성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유적임은 물론이다.

이상의 결과로써 본다면 현재의 부평·계양을 포괄하는 부천지역은 마한시대 정치체로서 소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 소국은 우휴모탁국을 지목해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우휴모탁국, 주부토군, 장제군, 고강동유적, 계양산성, 부천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부천의 마한소국 실재 검토 |
| II. 우휴모탁국 기록과 위치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2022년 6월 28일 부천문화원 주최 ‘고대 역사속의 부천과 우휴모탁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양고전학회 정회원 / jangwolgil@naver.com

I. 머리말

優休牟涿國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보이는 馬韓 50여 小國¹⁾ 중 하나이다. 이 소국은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 맹주국과 여러 형태의 결속관계를 성립한 채, 토착적인 세력기반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성장을 지속하다가 백제에 흡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우휴모탁국의 규모나 사회성격, 경제구조 등 모든 면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

우휴모탁국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차 방도는 우선 위치 문제에서부터라 하겠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모호한 상태이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천이나 인천 계양, 강원도 춘천, 또는 경기도 양주지역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나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문헌자료나 고고학자료를 통해서 우휴모탁국의 실체를 밝혀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휴모탁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렵다. 기왕의 견해들에서 그 위치에 대해 지목하여 놓았지만 의문점이 많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자칫 있지도 않은 허상을 더듬다 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본고에서 우휴모탁국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은 우휴모탁국 비정지 중 하나인 부천지역에서 근래 고고학 조사성과에 힘입어 이 지역 고대 정치체에 대한 많은 관심이 두어지고 있어서이다. 이에 기왕에 거론된 우휴모탁국의 위치문제를 제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통해서 부천지역 고대의 문화와 역사를 정립할 제대로 된 기준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우휴모탁국 기록과 위치

1. 우휴모탁국 기록 검토

우휴모탁국이라는 이름은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서 마한의 한 소국으로 처음 보인다. 마한은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 4세기 무렵까지 오늘날의 경기도로부터 충청도·전라도지역에 분포했던 여러 정치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²⁾ 이 기록에 따르면 마한에는 50여 개의 소국들이 분립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우휴모탁국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馬韓在西……有愛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活國(北宋本, 活作沽.)·伯濟國(伯濟國, 卽百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

1) 여기서 ‘소국(小國)’이라는 용어는 마한의 다음 단계에 성립하는 고대국가와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2) 이에 대하여 근래 대략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까지도 전라남도 지역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존재하였고 이를 마한의 잔존 세력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牟盧國·素謂乾國·古愛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馮本, 卑作甲, 誤)·臣魯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白斯烏旦國(宋本, 白作曰, 卽旬字. 白與曰異, 未詳孰是)·一離國·不彌國·支半國(宋本, 支作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錢大昭曰, 莫盧國, 已見上文, 此重出)·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濱邪國·愛池國·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³⁾

위에서 마한소국을 ‘50여 국’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실제 55개국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위 소국 이름에서 ‘莫盧國’이 18번째와 43번째에 두 번 등장하여 이를 중복된 것으로 본다면 54개국이 된다. 한편 마한소국 수가 『晉書』나 『翰苑』에 인용된 『魏略』에는 56국으로⁴⁾ 나오기도 하여 좀 더 천착이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료 중 마한소국의 이름이 다 나열된 것은 『삼국지』의 것이 최초이다. 물론 『한원』을 비롯한 몇몇 후대의 문헌에 마한소국 이름을 나열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삼국지』의 것을 재인용한 것들이다.⁵⁾ 이러한 점에서 일단 마한의 소국 수는 『삼국지』를 기준으로 54국으로 맞추어 볼 수 있다고 본다.⁶⁾

이들 마한소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그 위치를 찾을 때 소국들의 열거 순서가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방향을 취하고 있고, 54국은 그 중의 몇 개씩이 각각 단위가 되는 여러 개의 群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천관우의 방법론⁷⁾이 현재로서는 유용한 듯하다. 물론 이 방향성에 대하여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⁸⁾ 최근 이 설의 기초는 따르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교역로를 중심으로 마한소국의 열거 순서를 보고자 하는 견해⁹⁾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권역 및 교역권에 있는 나라들이 나란히 기재된 정도이지 그 전체가 일괄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¹⁰⁾도 있다.

그러나 『삼국지』 왜인전에 수록된 소국의 수록 순서라든지 중국 역대 사서의 서역전에 기술된 각국의 순서를 보면 모두 교통로를 따라 서술되었다는 견해¹¹⁾를 주목하면, 마한소국의 열거 순서는 전혀 무원칙한 것

3) 본 『三國志』 기사는 武英殿本(清代)을 저본으로 하였다.

4) “馬韓居山海之間, 無城郭, 凡有小國五十六所, 大者萬戶, 小者數千家, 各有渠帥.”(『晉書』列傳 東夷 馬韓條): “魏略曰, 三韓各有長帥, 其置官大者名臣智, 次曰邑借, 凡有小國五十六, 總十餘萬戶, 辰王治曰支國.”(『翰苑』蕃夷部 三韓條).

5) 이 때문에 재인용 과정에서 『삼국지』의 기록과 달라진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이들 문헌은 『翰苑』(659년경 완성), 『通志』(1161년 간행), 『文獻通考』(1307년경 완성) 등이라고 한다(윤용구, 「마한제국의 위치 재론」, 『지역과 역사』 45, 2019, 8~9쪽). 이 밖에 조선尹斗壽의 『箕子志』(1580년, 선조 13)에서도 다른 국명 표기가 보인다. ‘優休牟涿國’을 『한원』에 인용된 『魏志』에 ‘優休牟涿國’으로 표기하여 ‘涿’을 ‘渚’으로 표기했다든지, 『기리지』에 ‘優體牟涿國’이라 하여 ‘休’를 ‘體’로 표기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6) 마한소국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후한서』에서 그 수를 54개로 표현했다는 점은 앞 논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後漢書』卷85, 東夷列傳 75, 韓條).

7)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371쪽(초고는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 9, 1979).

8) 천관우 본인도 마한의 모든 소국을 일률적으로 이 법칙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月(目)支國’의 경우이다. 그는 마한소국 기사에서 월(목)지국 바로 앞의 古離國이나 怒藍國을 경기도 남부의 여주나 이천으로, 바로 뒤의 咨離牟盧國이나 素謂乾國을 충남 서산이나 보령으로 비정하는데 비하여 월(목)지국은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인천에 비정하였다(천관우, 앞의 책, 367~371쪽). 물론 월(목)지국을 해상교통을 전제하여 충남 해안의 서산·보령 방면과 연결 지은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면 본인의 견지에서 다른 합당한 근거가 있는 소국은 자신의 1차 법칙성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두기도 한 것이다.

9) 윤용구, 앞의 논문, 26쪽.

10) 전진국, 「마한 개념과 ‘국’에 대한 기록」, 『백제학보』 31, 2020, 22쪽.

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삼국지』라는 중국 정사에 수록될 정도라면 최소한의 서술 기준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역을 전제로 한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당시 대방군과 마한제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얻어진 정보가 『삼국지』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당시 대방군의 교역은 주로 하천이나 연안 항로와 같은 수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마한제국에 대한 정보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견해들을 참고할 때 『삼국지』에 기재된 마한소국들은 북에서 남으로의 방향성하에 해안이나 강을 이용한 수로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구분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대략 짚어보면 마한소국 중에서도 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경기도 일원으로 볼 수 있겠다. 위 『삼국지』 자료에서 우휴모탁국은 여섯 번째로 나온다. 마한소국 열거 순서가 기본적으로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설을 대입한다면 우휴모탁국은 마한소국 중에서도 북부에 위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록상 우휴모탁국은 小石索國, 大石索國, 臣漬沽國,¹³⁾ 伯濟國과 묶여서 나온다. 이는 이들이 서로 근접한 소국들이라는 것이고 한 권역으로 묶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우휴모탁국 위치에 대한 기존설

(1) 完州 高山說

신채호의 설¹⁴⁾로 ‘優休牟涿은 于召渚이니 高山 서부의 폐지되어 없어진 郡이름’이라 하여 지금의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서쪽 지역을 지목하였다. 이는 땅 이름의 음상사에 의거한 견해로 보인다. 즉 우휴모탁의 ‘優休’와 우소저의 ‘于召’를 대응시킨 듯하다. 우소저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金馬郡의령현인 紆洲縣의 백제 때 이름으로 나온다.¹⁵⁾ 이 우주현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고적조에는 폐기된 현으로 나오는데 그 협주에 州의 북쪽 50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다.¹⁶⁾ 이러한 점에서 이 설은 오늘날의 전주 북쪽, 완주 고산의 서쪽에 우휴모탁국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¹⁷⁾

(2) 富川(富平)說

이병도의 설¹⁸⁾로 언어학적인 추리에 의해 도출된 견해이다. 그는 부천(부평)의 옛 명칭이 고구려 때 主夫

11) 윤용구, 앞의 논문, 22~26쪽.

12) 당시 대방군과 마한제국의 교역과 이에 대한 『삼국지』의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윤용구 앞의 논문 26~27쪽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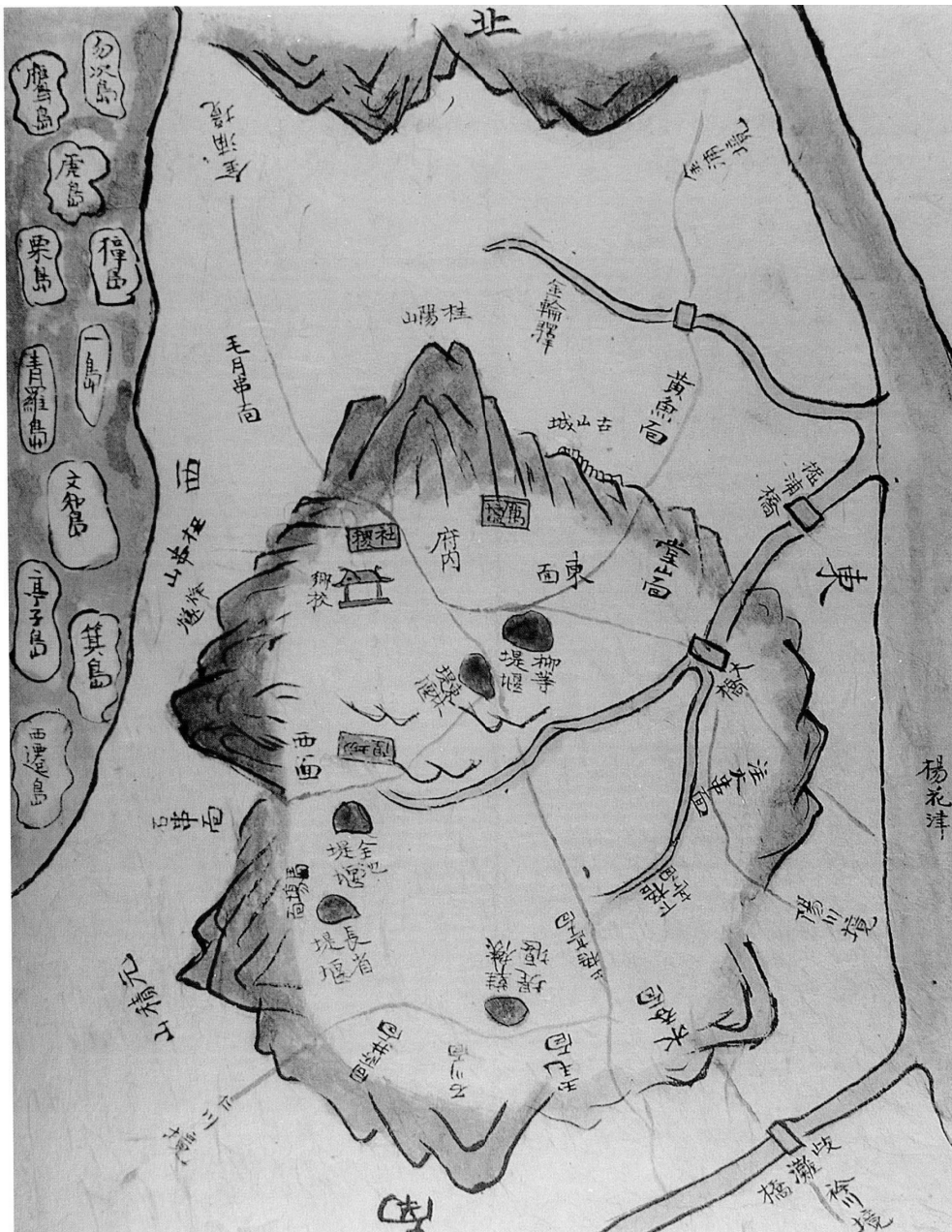
13) 臣漬沽國의 ‘沽’자는 앞에서 제시한 武英殿本에는 ‘活’로 되어 있다. 또한 『翰苑』 백제조에는 ‘臣漬沽國’이라 하여 ‘沽’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 宋本에 따라 ‘活’로 보고 있어 본고에서도 일단 이에 따른다.

14) 신채호(지), 박기봉(역), 「전후삼한고」,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2007, 426쪽. 본래 원 저자의 「전후삼한고」는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뒤 1926년 간행된 『조선사연구초』에 수록된 것이다.

15) “金馬郡……領縣三……紆洲縣, 本百濟于召渚縣, 景德王改名, 今紆州.”(『三國史記』地理志 全州條).

16) “紆州廢縣紆, 一作汚, 在州北五十里, 本百濟于召渚縣.”(『新增東國輿地勝覽』全州府 古跡).

17)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는 폐기된 통일신라~고려시대 紆洲縣의 위치를 보통 오늘날의 익산시 왕궁면과 완주군 제내리 일대로 보고 있다(『고도 익산 순례』, 익산문화원, 1997, 97쪽). 이 지역은 완주 고산의 서쪽에 해당한다.



『輿地圖書』富平府 지도(1760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8) 이병도, 「삼한의 제소국 문제」,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1959, 284쪽. 마한소국 위치에 대한 처음 견해는 「삼한문제의 신고찰」(1934~1937년)에 발표되었다.

吐郡이고 신라 때 長堤郡이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¹⁹⁾ 발음상 優休의 反切音이 주와 통하고, 의미상 牟涿은 水堤물둑의 뜻으로 뒤에 夫吐[보둑]로 변한 듯하다고 하여 優休牟涿國을 부천에 비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씨는 위치를 논하면서 ‘京畿道 富川(富平)郡’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이씨의 설을 보통 부천설이라고도 한다. 이렇다보니 얼핏 이 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부천지역인지, 부평지역인지 아니면 계양지역인지 불명확하게 된 것이다.

부천은 적어도 전근대시기에는 행정적으로 오늘날의 부평·계양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명칭 자체도 고려 高宗 때에는 ‘桂陽’으로, 忠宣王 때에는 ‘富平’이 되었고 이 명칭은 이후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다.²⁰⁾ 그리고 그 중심은 도호부 터가 있는 오늘날의 계양지역이었다.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에 제법 보이는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18세기 『여지도서』의 부평부 지도에서 보면 오늘날의 부천·부평·계양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있음을 알게 해준다. 여기서 행정적 중심은 지도의 윗부분에 ‘府內’로 표현된 곳인데 지금의 계양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씨의 설을 꼼꼼히 보면 우휴모탁국 중심위치는 계양지역인 듯하다. 다만 ‘京畿道 富川(富平)郡’이라고 한 데서 오해가 생긴 것이지만 광의로 보면 오늘날의 부천·부평·계양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목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씨가 이 설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30년대였다. 당시에 부평도호부 자리가 있던 지역은 행정적으로 ‘京畿道 富川郡’이었다. 1914년 행정 개편 때 仁川府 일부와 富平郡이 합쳐져 부천군이 된 것이다. 부천이라는 명칭이 이 때 생겼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씨는 우휴모탁국 비정위치를 당시 행정명에 따라 부천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 설명에서는 부평을 언급하였다.²¹⁾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행정명에도 부천이라는 명칭에 부평을 괄호치리하여 부기했던 것이다. 물론 그 중심은 부평도호부 자리가 있는 오늘날의 계양구 일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실 이씨의 설은 오늘날의 지명 기준으로 는 ‘부천·부평·계양설’이라 해야 하지만 원저자의 표현대로 일단 ‘부천(부평)설’이라 해두겠다.

(3) 載寧說

정인보의 설²²⁾로 언어학적인 추리에 의해 도출된 견해이다. ‘優休牟涿國’에서의 ‘涿’은 ‘돌’로 읽히는데 ‘野’의 뜻 ‘들’에서 옮겨온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優休’는 글자 뜻에 주목하여 ‘쉬다’로 풀이한 듯하다. 그리하여 ‘優休牟涿’은 ‘쉬움돌’이라 하고 이를 황해도 ‘載寧’의 옛 명칭인 ‘息城’·‘安風’에 연결시켰다. 즉 ‘優休’를 ‘息’·‘安’에 대응시킨 것이다. 이들 명칭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그 내용이 보이고 있다.²³⁾

19) 『三國史記』地理志에 長堤郡은 본래 고구려 主夫吐郡인데 경덕왕 때 개명한 것으로 고려 때 樹州였다. 이 수주를 富川에 비정한 것이다.

20) “建置沿革, 本高句麗主夫吐郡, 新羅改長堤, 高麗初改稱樹州……高宗改稱桂陽, 忠烈王陞吉州牧, 忠宣王二年汰諸牧改今名, 降爲府.”(『新增東國輿地勝覽』 富平都護府).

21) “富平은 高句麗時代の 主夫吐郡, 新羅時代の 長堤郡…….”(이병도, 앞의 논문, 284쪽).

22)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 115~116쪽. 이 책의 초고는 1935년이다.

23) “重盤郡, 本高句麗息城郡, 景德王改名, 今安州.”(『三國史記』地理志 漢州); “建置沿革, 本高句麗息城郡, 新羅景德王改重盤, 高麗初改稱安州……郡名, 息城·漢忽·重盤·安陵·安風·安州.”(『新增東國輿地勝覽』載寧郡).

(4) 春川說

천관우의 설²⁴⁾로 이 또한 언어학적인 추리에 의한 견해이다. 춘천의 옛 호칭이 ‘牛首’²⁵⁾로 음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 ‘牟溪’이 이병도의 견해대로 물둑[水堤]의 의미라 하면 춘천은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치는 지점이어서 水堤와도 관련이 있을듯하다고 하였다. 지리적으로 춘천이 마한제국에 들어갈 위치가 아니라는 의문도 있으나 『삼국사기』 백제 溫祚紀에 의하면 이 지역이 마한과 濊(靺鞨)의 접촉지대라는 것이다. 온조왕 38년 왕이 순무하여 동쪽으로 走壤에 이르렀다고²⁶⁾ 하였는데 이 주양을 춘천 일대로 본 것이다.²⁷⁾ 이로써 춘천지역도 마한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楊州古邑說

김기섭의 설²⁸⁾로 문헌사학을 기반으로 고고학 성과를 가미하여 제기한 견해이다. 그는 沸流백제전승²⁹⁾에 나오는 비류의 아버지인 優台와 우휴모탁국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백제초기의 고이왕·책계왕·분서왕·계왕으로 이어지는 4대가 우태·비류계로서 ‘優氏’라는 견해³⁰⁾를 수용하여 이를 백제사에 흡수된 우휴모탁국의 흔적이라 하였다. 우휴모탁국의 ‘優’자와 백제 인명에 보이는 ‘優’자에 착안한 것이다. 백제에서 이름 첫자에 ‘優’자를 쓰는 사람은 4명이 나오는데 고이왕대의 優壽와 優豆, 비류왕대의 優福, 무녕왕대의 優永이다. 그리고 백제의 또다른 시조로 나오는 仇台를 우태와 동일인물로 보는 설³¹⁾에 따라 그가 자리 잡았던 곳에 우휴모탁국을 비정하였다.³²⁾ 구태가 자리 잡은 근거지는 『북사』 백제전에 ‘帶方故地’로 나온다.³³⁾ 이 대방고지라는 것은 막연한 지칭이지만 비류전승의 우태와 구태를 같은 인물로 본다면 구체적 명칭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즉 비류가 정착하였던 ‘彌鄒忽’이 그 곳이 되는 것이다. 이는 김기섭의 표현대로 하면 ‘구태=우태=우휴모탁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³⁴⁾

이 미추홀에 대하여 김기섭은 楊州古邑의 고지명인 ‘買省忽’과 통한다고 보고, 바로 이 양주고읍 방면으로 미추홀을 비정하였다.³⁵⁾ 범위를 넓게 한다면 양주를 중심으로 坡州·漣川을 포함한 임진강유역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김기섭의 견해에 의하면 비류의 근거지인 미추홀을 우휴모탁국으로 보아 그 위

24) 천관우, 앞의 책, 417쪽. 마한소국 위치에 대한 처음 견해는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동양학』 9, 1979)에 발표되었다.

25) “朔州……善德王六年，唐貞觀十一年，爲牛首州置軍主[一云，文武王十三年，唐咸亨四年，置首若州.]，景德王改爲朔州，今春州.”(『三國史記』地理志 朔州).

26) “王巡撫，東至走壤，北至浪河.”(『三國史記』百濟溫祚王 38年條).

27) 천관우, 앞의 책, 382쪽.

28)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비류계의 역할」, 『청계사학』 16·17, 2002, 502~505쪽.

29) “一云，始祖沸流王，其父優台，北扶餘王解扶婁庶孫，母召西奴，卒本人延陀勃之女，始歸于優台，生子二人，長曰沸流，次曰溫祚，優台死，寡居于卒本……”(『三國史記』百濟溫祚王 卽位條 夾注).

30) 천관우, 앞의 책, 326~335쪽. 이 문제에 대한 처음 견해는 「삼한의 국가형성(하)」(『한국학보』 3, 1976)에 발표되었다.

31) 천관우, 앞의 책, 334쪽.

32) 김기섭, 앞의 논문, 502~505쪽.

33) “東明之後有仇台，篤於仁信，始立國於帶方故地.”(『北史』百濟傳).

34) 김기섭, 앞의 논문, 503쪽.

35) 김기섭,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3, 1998, 96~98쪽.

치도 양주고읍 방면이 된다. 이는 곧 ‘우휴모탁국=미추홀=양주고읍’이라는 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富川說

부천설은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이병도의 부천(부평)설 중에서 오늘날의 부천시역으로만 국한시켜 보는 이재욱의 견해³⁶⁾이다. 부천 고강동유적 조사성과를 주요 근거로 우휴모탁국 부천설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견해는 언론지에 실린 간단한 기사이지만 고강동유적의 積石環溝遺構³⁷⁾를 강조하여 부천의 정치체제를 논하고 이를 우휴모탁국에 대입한 것이다. 고강동유적의 적석환구유구는 그 구조나 입지조건으로 보아 종교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 장소가 天祭 또는 洞祭를 지냈던 마을의 중심으로 우휴모탁국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7) 桂陽說

박순발의 설³⁸⁾로 음운 재구성에 의한 비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중국 東方語言學³⁹⁾에서 제공하는 한자 고대 독음을 활용하여 마한소국 명칭을 한자 상고 독음으로 전환하고, 또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백제 군·현명도 상고 독음으로 전환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도인 『靑邱圖』에 표시된 군·현의 경계를 활용하여 삼국시대 군·현의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마한소국 위치를 비정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휴모탁이라는 말이 주부토와 통한다는 이병도의 설을 근거로 우휴모탁국을 인천 계양구에 비정하였다. 자료상 주부토는 신라 때 장제군이고 고려 때 계양으로 칭해지고 조선시대에 부평도호부였었다. 이 도호부 자리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계양구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된 것이다.

3. 기존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이상 기존설을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휴모탁국 위치비정에 대한 제설

비정지	유역권	비정자	전 거	비 고
원주 고산	만경강	신채호	「전후삼한고」, 『조선사연구초』, 1926.	1925년 초고
부천(부평)	한강 (경기만)	이병도	「삼한의 제소국 문제」,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1959.	1934~1937년 초고

36) 이재욱, 「우휴모탁국은 고 부천사의 중심이다」, 『부천시티저널』, 2017년 10월 12일 입력기사.

37) 배기동·강병하,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 부천시·한양대박물관, 2000, 38~74쪽.

38) 박순발,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2013, 125~126쪽.

39) 중국 동방어언학 사이트(www.eastling.or).

비정지	유역권	비정자	전 거	비 고
재령	재령강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1946.	1935년 초고
춘천	북한강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 9, 1979.	
양주고읍	임진강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비류계의 역할」, 『청계사학』 16 · 17, 2002.	
부천	한강	이재욱	「우휴모탁국은 고 부천사의 중심이다」, 『부천시티저널』, 2017.	
인천 계양	한강 (경기만)	박순발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2013.	

위 견해에서 완주 고산설은 땅 이름의 발음상 유사성에 의거한 견해로 보인다. 즉 우휴모탁의 ‘優休’와 백제 지명 于召渚의 ‘于召’를 대응시켜 도출한 견해인 듯한데, 다른 근거가 없어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

한편 부천(부평)설도 발음상의 유사성에 의한 것으로 다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휴모탁국을 비롯한 50여개 마한소국에 대한 이병도의 위치비정설은 이후 이 분야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우휴모탁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부천(부평)’이라는 표기로 인하여 뒤 연구자들이 오인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그의 잘못이 아니다. 후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쨌든 이 설은 뒤의 부천설·인천 계양설이 나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재령설은 ‘優休’를 ‘쉬다’로 풀이하여 ‘載寧’의 옛 명칭인 ‘息城’·‘安風’에 연결시킨 것인데, 과연 ‘우휴’를 ‘쉬다’로 풀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마한소국 이름을 채록할 때 의미가 아니라 현지 발음에 따라 한자로 기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마한소국 이름은 당시의 한자 독음으로 읽어서 다른 자료에 보이는 삼국시대 지명과의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견해⁴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載寧’은 뜻으로 ‘息城’·‘安風’에 연결되는 것이지 ‘優休’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마한의 범위는 북쪽으로 예성강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에 재령설은 따르기 어렵다.

춘천설 또한 언어학적인 추리에 바탕하고 있다. 춘천의 옛 호칭 ‘牛首’와 ‘優休’의 음이 통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또한 원저자 본인도 제기한 바이지만, 마한의 범위에 춘천이 들어가겠는 가도 의문이다. 『삼국지』의 마한소국 열거 순서가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본인의 법칙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는 마한소국 기사에서 우휴모탁국 바로 앞의 소석삭국이나 대석삭국을 교동이나 강화도로, 바로 뒤의 신분고국이나 백제국을 가평이나 서울 강남으로 비정하였다.⁴¹⁾ 이에 비하여 우휴모탁국으로 비정된 춘천은 가평과는 가까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소국들과는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졌고 방향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양주고읍설은 문헌학적으로 우태-구태-비류-미추홀-대방고지-양주고읍을 엮어가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여기에 고고학 자료를 더하여 결국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비정한 것이다. 이 설은 우휴모탁국의 ‘優’자와

40) 박순발, 앞의 논문, 124쪽.

41) 천관우, 앞의 책, 383 · 385 · 417 · 418쪽.

백제 인명에 보이는 ‘優’자가 같다는 것에 착안하여 전개된 견해로 앞선 설들에 비해 논리가 매우 정치하다.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하여 이미 반론이 제기된 바 있어⁴²⁾ 이 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소개함으로써 양주고읍설이 갖는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다. 첫째, 우태를 구태에 등치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미추홀을 과연 양주고읍으로 볼 수 있는가? 셋째, 미추홀의 지리적 특성으로 나오는 ‘海濱’과 ‘土濕水鹹’이 후대의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인천에 부회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미추홀의 특성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과연 미추홀의 지리적 특성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이었을까? 넷째, 미추홀-우휴모탁국-양주고읍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마한소국 중 ‘牟水國’을 양주고읍에 비정하는 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섯째, 구태가 건국했다는 ‘帶方故地’를 과연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켜 볼 수 있겠는가? 최소한 이상의 다섯 가지 의문점은 해소되어야 양주고읍설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외에 기록상 만주와 한반도에서 沸流라는 명칭이 남아있는 장소가 몇 군데 되지만 양주고읍 방면의 임진강유역에는 그 흔적이 없다든가, 백제 인명에 보이는 ‘優’자를 성씨로 볼 수 있겠는가⁴³⁾ 하는 점들도 이 설이 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부천설은 그동안 애매하게 부평·계양과 함께 엮어서 논의되었던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오늘날의 부천지역으로만 국한시켜 보는 견해이다. 고강동유적의 적석환구유구를 강조하여 종교의례와 관련짓고 나아가 부천의 정치체까지 논하고 있다. 이 견해는 앞선 설들과는 달리 우휴모탁국 위치비정에 적석환구유구를 대입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견해이다. 다만 문헌적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고고학 자료 제시도 부족하여 보완을 요한다.

계양설은 마한소국 명칭과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백제 군·현명을 한자 상고 독음으로 전환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단순한 언어학적 추리 수준이었던 이병도 설의 한 단계 진전된 형태라 하겠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아 이 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진다.

이상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제설을 검토한 결과 각 설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다만 언어학적인 추리와 마한소국 기사의 방향성, 고고학적인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대략 경기도 일원에서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병도의 부천(부평)설은 뒤의 여러 설에 대한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라 하겠다.

Ⅲ. 부천의 마한소국 실재 검토

1. 고대 행정구역을 통해 본 부천의 마한소국

위에서 살펴 본 여러 논의를 통해 볼 때, 우휴모탁국이든 아니든 부천지역도 마한소국과 관련된 논의가 가

42) 박찬규, 「백제의 시조 전승과 출자」, 『선사와 고대』 19, 2003, 46~48쪽.

43) 이 문제는 백제 왕실교대론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능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에 앞에서 알아 본 정보를 기초로 하여 부천지역에 마한소국이 실재하였는지 여부를 논하려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는 우선 『삼국사기』 지리지의 행정구역에서 부천에 해당하는 명칭을 찾아 마한소국을 대입해 보겠다. 삼국시대 군현 소재지는 인구 밀집지대였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이전 마한시대에도 거의 같았을 것이다. 자연 지형지세의 조건이 거의 동일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지의 군현 소재지에 마한소국을 대입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본다. 다음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부천이 속해 있는 경기권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뽑아 본 것이다.

〈표 2〉 『삼국사기』 지리지 경기권 주군명

비정지	고구려 군현명	통일신라 주군명
광주	漢山郡	漢州
여주	述川郡	沘川郡
안성 죽산	皆次山郡	介山郡
안성	奈兮忽	白城郡
수원	買忽郡	水城郡
화성 남양	唐城郡	唐恩郡
과천	栗木郡	栗津郡
안산	簞項口縣	簞口郡
부천, 부평, 계양	主夫吐郡	長堤郡
양주 옛터	北漢山郡	漢陽郡
양주 주내	買省縣	來蘇郡
파주 교하	泉井口縣	交河郡
포천	馬忽郡	堅城郡
개성	扶蘇岬	松岳郡
개풍	冬比忽	開城郡
강화	穴口郡	海口郡

위 표에서 볼 때 경기권의 통일신라시대 주군명은 16개 정도이다. 이 수치는 학계에서 인식하는 경기권의 마한소국 수와 대략 들어맞는다. 즉 한강 북쪽 및 해안지역에 마한 7개국⁴⁴⁾이 위치하고 한강 남쪽 경기 남부에 6~7개 정도가 분포한다거나,⁴⁴⁾ 또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에 17개 내외의 마한소국이 있었다는⁴⁵⁾ 견해가 현재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위 통일신라 주군 수가 경기권 마한소국 수에 근

44) 이현해, 「마한사회의 형성과 발전」, 『백제의 기원과 건국』,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 2007, 228쪽.

45)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 과정」, 『백제학보』 3, 2010, 42쪽.

접하여 통일신라 주군을 기준으로 마한소국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부천지역에도 마한소국이 실재했을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위 표에서 통일신라의 장제군이 부천지역으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부평과 계양지역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장제군지역에는 어떤 마한소국이 있었겠는가? 앞에서 마한소국의 열거순서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교통로를 기준으로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볼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현재 경기권 마한 비정지 중 그 위치가 확실하다 할 수 있는 것은 小石索國·大石索國⁴⁶⁾과 伯濟國 정도이다. 이들은 교동도·강화도와 서울 송파구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석삭국과 백제국은 교통로를 기준으로 한강수로권에 포함된다. 마한소국 방향성과 권역이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면 이들 두 소국사이에 열거되어 있는 소국들은 하나의 모둠으로 묶어 볼 수 있겠다. 이 모둠에 속하는 소국들은 우선 대석삭국·우휴모탁국·신분고국·백제국이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석삭국과 백제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휴모탁국과 신분고국은 강화도와 서울 송파 사이의 한강수로 연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⁴⁷⁾ 이를 염두에 두고 위 표에서 후보지를 찾자면 과천의 룰진군, 부천의 장제군이 해당한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지역과 두 개의 마한소국이 대응하게 되어 부천의 장제군은 둘 중 하나의 소국과 연결되게 된다. 앞서의 우휴모탁국 비정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천은 계속 등장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소국 중 우휴모탁국과 부천의 연결은 자연스럽다.⁴⁸⁾

이러한 논리를 전제할 때, 통일신라시대의 장제군이며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영역인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일대가 우휴모탁국의 권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주부토’ 명칭이 우휴모탁국에서 연유했다면 근래 계양산성에서 발견된 ‘주부토’로 볼 수 있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⁴⁹⁾는 광의의 부천(부평) 권역이 우휴모탁국의 근거지였음을 알려주는 물증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국어학적으로 부천(부평)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 면 이름인 ‘주화곶면(注火串面)’⁵⁰⁾이 ‘주부토’와 연결되고 나아가 우휴모탁국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⁵¹⁾가 있어 주목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본 명칭인 우휴모탁은 ‘優休(우희, 으뜸+牟[도, 득]+涿[도, 물길]의 구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였다. 부천(부평)과 관련하여 부평이라는 명칭의 시대적 이표기는 ‘優休牟涿國, 主夫吐郡, 長堤郡, 樹州, 富平, 注火串面’ 등인데 이 가운데 ‘優休牟涿, 主夫吐, 注火串’은 우리말에 대한 차자 표기이고, ‘長堤, 樹, 富平’은 우리말의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音讀 표기라고 하였다. 이들 이표기는 ‘으뜸, 벌판, 득, 물길, 고지’ 등의 지세적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

46) 소석삭국·대석삭국에 대한 논증은 천관우의 견해 참고(앞의 책, 385쪽).

47) 강화도와 송파 사이 한강하구 수로권에서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으로는 굴포천·안양천·탄천이 있다. 여기서 장제군이 있었던 부천은 굴포천유역에, 룰진군이 있었던 과천은 안양천유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탄천유역에는 백제국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우휴모탁국 비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48) 물론 이 때에도 장제군의 범위에 오늘날의 부천, 부평, 계양을 포괄하여 상정해야 한다.

49) 2003년부터 시작된 계양산성 발굴조사에서 ‘主夫吐’로 볼 수 있는 기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기와에 대하여 발굴보고서에서는 통일신라시대 9세기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Ⅱ』, 2011, 285쪽).

50) “注火串面五坊, 自官門東距十五里, 一百七十三戶, 內男三百十口, 女三百二十三口.”(『輿地圖書』上, 京畿道 富平府 坊里).

51) 이진식, 「마한소국 우휴모탁국 표기와 조선 시대 부평도호부 주화곶면 표기의 의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구결연구』 49, 2022, 54~67쪽.

다. 우선 한자어 지명인 장제군은 ‘으뜸, 독’의 두 의미만을, 수주는 ‘으뜸’의 한 의미만을, 부평은 ‘으뜸, 별판’의 두 의미만 보존한 것이라 하였다. 차자 표기인 우휴모탁은 ‘으뜸, 독, 물길’의 의미만을, 주부토⁵²⁾는 ‘으뜸, 별판, 독’의 의미만을, 주화곶은 ‘으뜸, 별판, 고지’나 ‘별판, 물길, 고지’의 의미만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결국 주화곶은 주부토의 이표기로 볼 수 있고, 그 연원은 우휴모탁으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된다.⁵³⁾ 이 주화곶명은 오늘날 부천시 대장동(大壯洞) 일대에 비정된다.⁵⁴⁾ 이를 통해서도 주부토의 지리적 범위는 오늘날의 부천지역까지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부토와 우휴모탁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주화곶명이 소재했던 부천과 우휴모탁국의 연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비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 논의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군 단위의 명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하위 현 단위까지 검토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분고국 위치 문제⁵⁵⁾까지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우휴모탁국과 부천과의 관계에 대한 위의 논의는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부천의 선사유적과 마한소국

이상의 논의는 문헌적 측면에서 부천의 마한소국 문제를 풀어본 것이다. 그 결과 광의의 부천(부평·계양 포함)지역에 마한소국이 실재했을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그 구체적 중심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물론 부평도호부 터가 있는 계양지역을 거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고려 후기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이전의 상황은 불분명하다. 더욱이 마한시대 광의의 부천 중심지가 어디였는가는 모호한 상태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문헌적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다른 측면에서 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그 중 한 방안이 고고학 분야의 성과를 원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한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마한지역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발굴조사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부천지역에서도 근래 주목할 만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 지역 고대문화의 일면을 밝혀준 바 있다. 이들 유적은 마한시대에 연결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논의를 요한다.

부천의 선사유적 가운데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고강동유적이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

52) 이와 관련하여 주부토군의 ‘主夫’를 ‘남’의 음차로, 뼉을 ‘터’의 음차로 보아 주부토를 ‘남터’ 곧 ‘主要地’의 뜻으로 해석했다든지(신태현, 『삼국사기지리지의 연구』, 『신흥대학교논문집』 1, 1958, 15·49쪽), ‘부평지방의 전설에 의하면……주민들이 차차로 뚝을 여기저기 쌓아 보둑은 줄줄이 이어져 줄보둑이라는 지명(地名)까지 생겼는데 그의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주부토(主夫吐)가 된 것이라 전해온다.’(이훈익, 『인천지명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3, 73쪽)든지, ‘물가에 접해 있는 뚝이 늘어선 고을’(『부천시사』 1, 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568쪽)이라는 등의 견해도 있어 왔다.

53) 결국 이 견해는 논거가 불충분하였던 이병도의 ‘우휴모탁국 부천(부평)설’을 치밀한 국어학적인 논증에 의하여 새롭게 보강한 셈이다.

54) 대장동 외에 서울시 강서구 五穀洞·五鉤洞도 주화곶명의 범주에 들어간다. 오곡동과 오쇠동은 본래 부천 소속이었다가 1963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55) 신분고국은 현재 경기도 적성 일대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다.

대에 걸치는 마을유적이다. 바닥 평면이 긴 네모꼴 움집터[豎穴住居址]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 지어졌으며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형적인 입지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한다. 특히 1999년 4차 발굴에서 발견된 적석환구유구⁵⁶⁾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그 구조나 입지조건에서 종교의례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환구유구에서 발견된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등은 하늘에 지내는 제사 관련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환구유구는 蘇塗의 전신으로서 제의 또는 의례의 기능을 수행하던 유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⁷⁾ 그렇지만 마한형성기인 초기철기시대나 『삼국지』 마한소국시대인 서기 3세기까지에 해당하는 환구유구가 적어도 경기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고강동 환구유구를 통하여 마한 소도와 마한소국을 바로 확정하기에는 주저된다.⁵⁸⁾

이 밖에 부천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으로 마한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월동유적이 있다. 2005~2007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인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 등 총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⁵⁹⁾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점토대토기 단계로 근처 고강동유적과 더불어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여기서 발견된 원형점토대토기편과 두형토기편 또한 고강동 환구유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의례용으로써 볼 수 있다면, 역시 마한소국과의 연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려(呂)’자형으로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주거문화를 밝혀 줄 자료로 평가되는데, 이 또한 마한소국과의 연계 가능성이 짙다.

한편 계양지역의 계양산성도 거론해 볼 수 있다. 이 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증보문헌비고』 등에 소개되어 있는데 정확한 축조 시기는 불확실하다. 10여 차례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 한성백제기 축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主夫吐’ 명문기와는 이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할 물질자료로서 주목되고 있다. 비록 이 기와는 통일신라시기 것이지만 ‘주부토’ 명칭의 연원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도 마한시대로까지 올려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부토와 우휴모택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 논의에서 볼 때 고고학적으로 광의의 부천지역에서 마한과 관련지을 수 있는 곳은 우선 고강동(여월동·대장동 포함) 일대와 계양산성 일대 두 구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종교의례 유구가 있는 고강동유적이 마한소국에 더 접근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계양지역이 『삼국지』 마한의 시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광의의 부천 마한소국 중심위치는 계양산성 일대와 고강동 일대 두 지역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해야 할 것이다.

56) 배기동·강병학, 앞의 책, 38~74쪽.

57)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보고서에서 삼한 소도의 원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배기동·강병학, 앞의 책, 157~158쪽).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시대의 환구가 마한의 소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지만 소도의 기원으로 볼 여지는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참고가 된다(이형원, 「경기지역 마한 형성기의 점토대토기문화」,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경기문화재단 외, 2021, 32쪽).

58) 그런데 만약 고강동유적이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제의유적이면서 환호유적에 해당한다면(김선우, 「청동기시대 제의에 대한 일 고찰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68, 2022, 99쪽) 이를 마한소국에 대입해 볼 여지는 있게 된다.

59) 고려문화재연구원, 『부천 여월동유적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9, 113~121쪽.

참고로 이 두 지역을 앞서 제시한 『여지도서』 부평부 지도에서 살펴보자. 우선 지도의 윗부분인 북서쪽의 계양산 부근 古山城・厲壇・社稷・鄉校가 위치한 府內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지도의 아랫부분인 남동쪽의 注火串面・下梧亭面・上梧亭面이 위치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권역이 위에서 언급한 오늘날의 계양산성 일대와 고강동 일대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두 권역을 대상으로 우휴모탁국의 중심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우휴모탁국에 대한 기본 사료와 위치 비정론을 중심으로 부천지역 마한소국 실재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우휴모탁국 명칭이 실려 있는 『삼국지』 마한소국 기사에서 50여 소국의 열거 순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방향을 취하고 있고,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대입해 볼 때 우휴모탁국은 한강하구권으로 분류되어 경기도 일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휴모탁국의 위치 비정에 대한 제설 검토에서는 어느 설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다만 언어학적인 추리와 마한소국 기사의 방향성, 고고학적인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일원에서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은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휴모탁국 위치에 대한 여러 설 중에서 이병도의 부천(부평)설은 여전히 유효한 견해를 알 수 있었다. 이 견해는 발음상의 유사성 외에 다른 근거는 없지만 뒤의 부천설·인천 계양설이 나오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지를 통해서도 부천지역에 마한소국이 실재하였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 결과 우휴모탁국과 신분고국 중 한 소국이 부천지역과 인연을 맺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여러 비정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거론된 우휴모탁국이 주목되었다. 이 때 부천지역은 오늘날의 부평·계양을 포괄하는 물론이다. 또한 국어학적으로 부천의 조선시대 면 이름 중 하나인 주화곶면이 주부토군과 연결되고 나아가 우휴모탁국과의 연결도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마한소국에 접근해 보았는데 부천의 고강동유적의 적석환구유구가 주목되었다. 이 유구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그 구조나 입지조건에서 종교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마한 소도의 원형으로까지 추정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써 본다면 현재의 부평·계양을 포괄하는 부천지역은 마한시대 정치체로서 소국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조심스럽지만 그 소국은 우휴모탁국을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문헌자료의 심층적 분석과 고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특히 고고학 발굴조사는 비단 우휴모탁국 문제만이 아니라 부천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後漢書』

『三國志』

『晉書』

『北史』

『翰苑』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箕子志』

『輿地圖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 Ⅱ』, 2011.

고려문화재연구원, 『부천 여월동유적 -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9.

배기동·강병학,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 부천시·한양대박물관, 2000.

김기섭,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3, 1998.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비류계의 역할」, 『청계사학』 16·17, 2002.

김선우, 「청동기시대 제의에 대한 일 고찰 -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 『선사와 고대』 68, 2022.

박순발,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2013.

박찬규, 「백제의 시조 전승과 출자」, 『선사와 고대』 19, 2003.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1, 2002.

신채호(지), 박기봉(역), 「전후삼한고」,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2007.

신태현, 「삼국사기지리지의 연구」, 『신흥대학교논문집』 1, 1958.

윤용구, 「마한제국의 위치재론」, 『지역과 역사』 45, 2019.

이건식, 「마한소국 우휴모탁국 표기와 조선 시대 부평도호부 주화꽃면 표기의 의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구결연구』 49, 2022.

이병도, 「삼한의 제소국 문제」,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1959.

이재욱, 「우휴모탁국은 고 부천사의 중심이다」, 『부천시티저널』, 2017년 10월 12일자.

이현해, 「마한사회의 형성과 발전」, 『백제의 기원과 건국』,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 2007.

이형원, 「경기지역 마한 형성기의 점토대토기문화」,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경기문화재단 외, 2021.

이훈익, 『인천지명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3.

익산문화원, 『고도 익산 순례』, 1997.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 과정」, 『백제학보』 3, 2010.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4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Uhyumotakguk(優休牟涿國) and Bucheon

Park, ChanKyu*

Uhyumotakguk(優休牟涿國) is one of the Mahan(馬韓) countries seen in the Section for East Barbarians(東夷傳) of the 『Samgukji(三國志)』.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size, soci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ructure of this small country. The first way to approach this is a matter of location, but this is also ambiguous.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difficult to study the Uhyumotakguk. However, since the Bucheon(富川) region is also mentioned about the location of the Uhyumotakguk, various theories about the location of the Uhyumotakguk mentioned earlier were reviewed. Through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t was related to Buche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many theories, Lee Byung-do(李丙燾)'s Bucheon(Bupyeong : 富平) theory was still valid.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Mahan in the Bucheon region through Jubuto-gun(主夫吐郡) and Jange-gun(長堤郡), which are the names of the Bucheon region(including Bupyeong and Gyeyang(桂陽)) in the 『Samguksagi(三國史記)』 jiriji(地理志).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Uhyumotakguk would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Bucheon reg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Juhwagot-myeon(注火串面), one of the names of myeons in Bucheon during the Joseon(朝鮮) Dynasty, was connected to Jubuto-gun, and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connect with Uhyumotakguk.

On the other hand, archaeologically, the Gogang-dong(古康洞) ruins in Bucheon drew attention. These ruins are dated from the late Bronze Age to the early Iron Age, and were thought to prove the existence of Mahan in Bucheon. In particular, the Hwankuyugu(環溝遺構) of this site is related to religious ceremonies in terms of their structure and spatial conditions, and can be estimated as the original form of Mahan Sodo(蘇塗). In addition, Gyeyang-mountain Fortress, where a tile with the name 'Jubuto' was discovered, is of course also a site to keep an eye on.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resent Bucheon area, which includes Bupyeong and Gyeyang, had a small country as a political body during the Mahan

* Regular Member, The Society of the Eastern Classic

period. That small country can be pointed out as the Uhyumotakguk.

[Keywords] Uhyumotakguk, Jubuto-gun, Jangje-gun, Gogang-dong sites, Gyeyang-mountain Fortress, Bucheon

